

# Korea Venture Festival

## 2005

대한민국 창업대전 이모저모

##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업정보, 풍성한 잔치 한마당

국내 창업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2005 대한민국창업대전'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학생 및 예비창업자들의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포상하는 한편,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된 신기술의 사업화를 한 걸음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3일 동안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성료한 창업대전은 벤처 미래,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힌 희망의 현장이었다.

### 참신한 창업아이템이 즐비한 전시장

전시장 내부는 첫날부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갖가지 사업아이템을 선보이느라 여념이 없는 120여 개 부스는 생생한 창업경연장의 모습을 연출했다. '우수창업기업 초청관'에서는 창업대전 역대 수상자와 비즈쿨 입상자, 해외창업동아리들이 자리를 잡고 후배 참가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그런가 하면 전국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연장에 입성한 기업들은 '창업보육센터 추천관'에서 방문객들을 맞았다. 올해 창업대전 수상의 영예를 안은 50개 업체는 '창업대전 수상자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톡톡 튀는 창업 트렌드를 과시했다.

### 창업기업 눈높이 맞춘 지원 프로그램

창업대전의 장점은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있다. 창업기업과 투자기관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한 '기술거래장터'는 투자 상담은 물론 기술 M&A까지 지원하며 30여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국건설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업은행, 기술거래소가 창업기업의 기술교류지원군으로 활약했다. '1대1 창업맞춤상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들에게 열린창구로서 든든한 역할을 했다. 한국창업경영권설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창업보육협회는 50개 업체와 1대1 상담을 실시해 창업기업들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다방면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절차 상담도 전개됐다.

### 예비·신규창업자들의 정보창구 역할 완수

창업대전 첫째 날에는 포테이토밸리 임태태 대표의 '창업성공사례발표회'가 마련돼 창업대전 참가자를 비롯해 창업을 앞둔 예비벤처인들의 창업 준비를 도왔다. 생식용 감자 등 신식품 감자를 개발해 벤처의 새 영역을 개척한 임대표는 창업대전 참가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단계에 들어서기까지의 성공노하우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또 마케팅MBA 김영한 대표, 화인경영회계법인 염규옥 매니저가 각각 '창업초기 기업의 시장진입과 마케팅 전략', '창업자금 조달방법 및 재무회계 운영방법'에 관해 특강을 진행해 둘째 날 행사장을 찾은 예비·신규창업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이 강연은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기록했다.



# 대한민국창업대전 Challenge, Beyond Success

대한민국창업대전 이모저모

## 화제의 인물 미니인터뷰 / 역경을 딛고 일어난 벤처인, 더웨이 김해일 대표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의 추천으로 2005 대한민국창업대전에 참가한 벤처기업 더웨이의 부스는 유난히 사람들로 붐볐다. 나이 든 중년신사부터 꼬마숙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은 제품은 바로 ‘필그립’이라는 지필보정기구. 필기구 쥐는 습관을 바로잡아 준다는 필그립은 최근 8개월 동안 전국의 대형 할인점과 문구점 등에서 5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이디어 상품이다.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더웨이의 김해일 대표. 유망 벤처기업의 CEO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이지만, 과거 7년간 도파생활을 하며 역경을 거치기도 했다.

“20대에 유흥업에 뛰어들었다가 2억여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고통스런 시간이 시작됐죠.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빚을 다 갚는데 7년이나 걸렸죠.”

2002년 우연히 얻은 아이디어로 ‘필그립’을 개발하면서 그의 인생은 제2막이 열렸다. 신용불량 전력으로 자금지원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의 지원과 김대표가 발로 뚫은 땀의 결실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창업자금을 받게 된 것. 지난해 초 프랑크푸르트국제문구박람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수출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저희 홈페이지(www.itheway.com)에 신청만 하시면 필그립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기관,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단체에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픈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올바른 길(THE WAY)을 향해 걷고 싶다는 김해일 대표의 고백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자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 지방벤처기업 유통체계 개선 위한 ‘열린시장’



10월 14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아셈홀에서 진행된 ‘우수 벤처제품 오픈마켓’ 덕분에 지방소재 벤처기업들이 활짝 웃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벤처기업들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우수상품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55개 업체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중소기업청의 후원으로 협회가 주관한 오픈마켓은 D&Shop, 인터넷3G마켓, 롯데마트, 다음온켓, 엔투비 등 유통업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가기업들에게 각 유통업체와 1대1 거래 상담 기회가 주어진 것. 그 외에도 판로개척을 위한 공개강좌가 열려 지방벤처기업들의 마케팅 도우미 역할을 했다. 한편, 아셈홀 203호에 마련된 오픈장터에는 우수 지방벤처들이 개발한 제품들이 다수 진열돼 시선을 집중시켰다. 언제든 후대가 가능하도록 배낭에 부착한 방독면, 설탕 대응으로 쓸 수 있는 저혈당 감초추출물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벤처기업의 성공적 시장개척을 위한 중기청, 협회, 유통업체의 삼박자 활약이 돋보인 ‘우수 벤처제품 오픈마켓’은 유통체계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Korea Venture Festival

## 2005

### 벤처 인재들 우수 벤처기업 채용박람회로 집합!

'2005 우수 벤처기업 채용박람회'가 10월 14, 15일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채용박람회에는 2000여 명의 젊은 구직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비트컴퓨터,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리딩 벤처기업 40개사가 부스를 마련하고 약 500여 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다. 참가업체들은 크게 IT정보통신기업, 엔터테인먼트기업, 첨단제조기업 등으로 나뉘며 신입은 물론 경력자들에게도 문을 열어두었다. 각 부스에는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인재들의 방문을 환영했고, 구직자들은 서류전형과 동시에 면접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협회가 주최하고, 잡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문서지원실, 이력서사진촬영관, 이력서자기소개서컨설팅, 면접이미지컨설팅, IT교육전문컨설팅, 취업도서관, 인적성검사대, 정보검색대 등으로 구성된 테마관을 갖추고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구직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 역시 주목받았다. 드림위즈와 동부는 즉석에서 모의면접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블루버드소프트, 에스이티, 인텔리전스웨어, 넷피아닷컴은 공개채용설명회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자사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밖에 '변화를 위한 자기관리', '이미지 Up 취업 Success',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4차례의 취업특강이 열려 알찬 채용박람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벤처기업 연합채용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사전에 기업별로 입사지원자의 실무능력을 검증할 만한 과제를 제출하게 한 뒤 공모전을 통해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협회 김태희 수석부회장이 시상자로 나선 가운데 조승원(최우수상), 손경록, 김성수(우수상), 권혁재, 송윤경, 서정호(입선) 등 입상자 6명에게 상장과 소정의 취업지원금이 수여됐다.

한편,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도 구직자들의 클릭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